

### 한국농어촌공사, 마사회·농업대학과 양해각서 체결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전국 저수지 주변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흥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이후 저수지 주변부를 개발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할 특별법안이 2009. 4. 29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한국마사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수지 주변 부지에 승마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섰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4.2〉

### 대규모 농어업회사...대기업의 농업진출 ‘신호탄’

농림수산식품부가 4월 3일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에 들어설 대규모 농어업회사 우선협상 대상업체 7곳을 선정하면서 국내에서도 대기업이 농업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 됐다. 삼성과 현대가 농축산물 생산 분야에서 철수한 뒤 처음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자료: 농민신문 4.8〉

### 정부, 쌀시장 조기개방 본격

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4월 7일 첫 워크숍을 열고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쌀 시장 조기 개방이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 하지는 것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자료: 조선일보 4.8〉

### 윤곽 드러나는 ‘농어업 선진화’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장관,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가 지난 4월 7일 농업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농어업선진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농업전반에 걸쳐 있으며 직불제, 보조금, 농가소득 등 주요한 쟁점들도 포함돼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 각 분과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업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주요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이번 선진화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적 성향의 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료: 농정신문 4.11〉

## 세계 식량위기 몇십년 계속될 수도

지난 2년간 지구촌을 뒤흔든 식량위기에 대한 잇단 경고음이 이어져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7개국과 러시아로 구성된 G8은 전 세계의 식량난이 '구조적 문제'라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난 2년여 국제사회를 강타한 식량위기가 지구촌의 '영구적인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G8이 이탈리아에서 이번달 첫 농업장관 회담을 열기에 앞서 작성된 식량보고서를 인용해 "이런 구조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급증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식량 생산이 지금의 두배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농민신문 4.13>

## 기후변화 농업대응대책 서둘러야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는 경우 농업부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4월 8일 발표한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상승으로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증가했고,

기온이 계속해서 오를 경우 쌀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지가격도 하락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갈색여치와 주홍날개 꽃매미에 의한 사과·복숭아·포도 등의 피해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벼 줄무늬 잎마름병은 1935년 진주·밀양·구례에서 최초 발생 후 북상하여 2001년 경기 7개 시·군, 2007년 경기·충남·전남북·경남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농정신문 4.13>

## 기온 오를수록 농업손실 커져

지구온난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2℃ 오르면 10a 당 쌀 생산량은 4.5% 감소하고, 연평균 기온이 1℃ 오르면 농지가격이 1ha에 최고 1,900만원 정도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06년까지 기후가 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배기간의 평균기온이 19℃ 이하이면 1℃ 상승시 10a당 평균 24.4kg 수확량이 증가하나, 20℃ 이상인 경우 오히려 6.2k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농민신문, 4.5>

## 녹색뉴딜에 한국이 가장 앞섰다

2009년은 원래 환경 문제 해결의 고비가 되는 해로 예정돼 있었다. 각국 정상과 환경장관들이 12월 코펜하겐에 모여 2012년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협정을 협의한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사정이 달라졌다. 세계 각국이 은행을 살리고, 경제를 부양하느라 수조 달러를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며 환경 전문가들은 코펜하겐 정상회담이 열릴 때쯤엔 남은 돈이 없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아힘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에게 글로벌 경기 침체는 곧 기회다. 그는 세계 GDP의 1%(약 75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생태유지 운송과 농업, 에너지 효율에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녹색뉴딜을 제안했다. 슈타이너는 이로써 세계경제를 살리고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료: 중앙일보 4.15〉

## 바닷물로 농사를…두바이 해수 하늘농장

두바이가 바닷물로 농사를 짓는 '해수 하늘 농장'으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유리 온실 타워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신개념 농법이다. '해수 하늘 농장'은 지난 2년간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주택과 인프라 건설을 해

온 이탈리아의 건축회사 '스튜디오 모바일'사가 두바이에 제안한 프로젝트다. '해수 하늘 농장'은 바닷물을 직접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은 온실 안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증발된 습기로 물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먼저 거대한 기둥에 딱 앞모양의 유리 온실을 층층이 만들어 연결한다. 그리고 바닷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기둥과 유리온실에 순환시킨다. 온실 바닥으로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은 온실의 뜨거운 공기를 식히고 농작물에 필요한 습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온실 안은 식물이 생장하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된다.

〈자료: 조인스 4.16〉

## 새만금 간척지에서 튼립 시험재배

새만금 간척지에서 화훼류 재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금기에 강한 '튼립'의 시험재배가 진행된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17일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간척지 0.5ha에 안젤리코와 아펠톤 등 튼립 8품종을 심어 염 농도에 강한 품종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광활 간척지가 미사질 양토로 되어 있어 알뿌리 화훼종인 '튼립'의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험 결과를 각종 화초 식재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료: 연합뉴스 4.17〉